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시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2024 광주교육 주요 사업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김여선 전남도교육청 정책국장이 '2024대한민국 글로벌미래교육 박람회'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다시 교육의 본질로’ 집중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추진한 실력 향상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4년 갑진년 다양한 실력을 구체화할 '다시 교육의 본질로'를 위한 4대 영역 16대 중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이 강조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2024년 광주교육 4대 영역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틀 토대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다양성 품은 실력 향상 내실화

먼저 광주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다양성을 품은 수업 활성화, 창의적 독서교육, 맞춤형 진로·진학 강화, 교육특구 조성과 연계한 특성화고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실력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은 수업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 학생들의 소질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성을 품은 수업을 통해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교실 수업 지원에 집중한다.

내년에는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의 확대, '집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실 수업 강화를 위한 연구문화 활성화와 수업 나눔 내실화 지원, 학교급별 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광주 수업페스티벌(유·초·중·고·특수) 개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AI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으로 내실을 다질 구상이다.

다양한 실력 향상은 창의적 독서교육을 통해 구체화하고 분야를 확장 시켜줄 방침이다.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실천으로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 학교급에 맞는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교육 과정 연계 독서교육 내실화와 인문학교육 활성화에 집중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인권 강화

이정선 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대입전면다택터 운영, 365일 24시간 진로·진학 상담서비스 운영, 빛고을온학교(온라인 학교) 운영, 스테디 카페형365-스터디룸 운영은 지속 운영해 맞춤형 진로·진학을 강화한다.

이와 연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학생 참여형 진로탐색공간 조성을 위해 중학교 2개교를 선정, 각각 5천만원 지원해 '365-커리어룸'을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지역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교육특구 조성과 연계한 특성화고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래 산업수요에 대비해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및 신기술 교육 지원, 학생 요구와 진로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대 영역 중 학생들의 따뜻한 인성을 위해 인권 존중 학교 기반 조성, 실천 중심 인성·생활교육 강화, 교원·교육 활동 보호, 학생 인권교육 활성화, 청소년

페스티벌 운영' 등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 체험과 공유의 장을 폭넓게 마련한다. 365+체육은 활동 등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틈새 시간을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체육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주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학생글로벌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초등학생 저학년은 글로벌 리더 동

‘4대 영역·16대 중점 사업’ 총력 지원

창의적 독서교육·수업 활성화 등 내실화



최근 열린 2024 광주교육 설명회에서 '디지털 기반 미래로' 영역의 AI 미래교육을 선보였다.

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등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인권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지역·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도 확대한다.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꿈드림'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학교생활에 작·간접 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담 경계적 부담을 완화하고, 꿈 실현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다문화·탈북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연간 100만원 바우처카드를 지급,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광주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을 운영해 교실 너머 학생들의 삶까지 깊이 보살핀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따뜻한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와 학생 예술극장, 청소년 해방구 야호 ZONE을 연결하는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고 학생 중심의 '아외버스킹', '광주학생탈테트

네 한바퀴,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글로벌 리더 팔도 한바퀴, 중·고등학생의 경우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박차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마을이 위치, 다문화가정이 집중돼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도 추진한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빠른 한국어 습득을 위해 한국어 예비과정 프로그램, 방학 중 한국어 집중 캠프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지낼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학교에는 전자칠판, 피지컬 컴퓨팅 도구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박철신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2024년 광주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주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 총력

전남도교육청

직선 4기 김대중 도교육감이 이끄는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전격집중된 결과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김대중 도교육감의 1호 공약인 학생교육수당을 오는 3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로 전남지역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또 김 교육감은 매일 여론조사 전문

교육'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에듀테크 위주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박람회가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되는 미래 교육의 모델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를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미래교실 운영,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 축제 등 각 색선 속에서 감동의 스토리로 표현해 낸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참가객만 20만명 이상에 이르고 25개국, 150여 기관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국제행사도 구상하고 있다.

오는 5월 여수서 개최...교육부·전남도 공동 주최

공약 1호 '학생교육수당' 실현·직무수행 1위 성과도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전경.

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 대부분 1위를 차지하면서 부드럽지만 강한 교육행정 리더십을 인정받아 2024년 도교육청의 현안 사업 추진도 주목된다.

무엇보다 전남도교육청이 2024년 해에 가장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최대 현안 사업은 '글로벌미래교육 박람회'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중심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전시·체험·학습·교류 한마당이 오는 5월 여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새 패러다임 제시

도교육청은 교육부·전남도와 공동으로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를 관통하는 주제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다. 전남의 작은 학교와 지역이 세계 여러 지역과 초연결되고, 실천적 교육으로 환경을 지켜내며, 포용적인 미래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테마는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교육, 지역을 살리는 실천적 교육, 세계가 닮고 싶은 지역

본청 내에 추진단을 꾸리고 여수 현지에도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미래교육 대전환의 신호탄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지역 중심 공생교육으로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질과 역량을 길러줌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세계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에서 출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공생의 '글로벌교육'을 활짝 열어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금까지 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미래교육'이 지역 중심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현실과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제시되는 글로벌 교육의 방향은 ▲글로벌 인식 ▲디지털 기술 ▲능동적 학습 ▲지역 관련성 ▲다문화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2030미래교실 길러 콘텐츠로 준비

이번 박람회의 길러 콘텐츠는 미리

보는 '2030미래교실'이다. 박람회장에는 미래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담은 작은학교 교실이 구축될 예정이어서 일찍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중·고 각 1개의 학급이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는 '2030미래교실 운영관'에는 실제 교사와 학생들이 미래교육 과정을 토대로 총 48시간 수업을 진행한다. 박람회 현장과 해외 현지 교실을 연결한 프로젝트 수업,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합 수업 등 다양한 주제의 미래 수업 현장도 생생하게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미래교육 전시'는 정부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대한민국교육관, 국내외 우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관(에듀테크 벨리), 2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교육관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교육관은 전남도 미래교육 실천사례와 각 시도 및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관람·체험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기업관(에듀테크 벨리)에서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만날 수 있다.

국제교육관에는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 국가와 교육선진국을 포함한 25개국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 전시·체험 부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유네스코·OECD 등 국제 교육 관련 기구의 홍보관도 마련된다.

◇글로벌 미래교육 정책 공유·토론

이번 박람회의 성격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학술 프로그램은 기조강연, 참여국 콘퍼런스, 세미나 등이다.

세계의 교육리더들이 강사로 나서 미래교육 방향, 교육자치 경쟁력, AI 디지털 발전과 학교 교육, 다문화사회의 세계시민, 기후환경·생태교육 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강연을 펼친다.

또한 각국의 미래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콘퍼런스가 베트남·미국·중국·호주·일본·캐나다·필리핀 등 국가별로 나눠 운영된다.

국제 세미나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의 독특한 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더불어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되고, 전국학생의장단은 '학생자치 문화 실현'을 위한 지혜를 모은다.

김여선 전남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지방시대에서는 지역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지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교육환경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주제로 전남교육의 우수성과 미래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박람회에서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이기자